

Porcelain Laminate Veneer의 성공 및 실패

이근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연자약력

1979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
1988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박사학위
1990	: (미)네브拉斯카 치과대학 방문교수
1991	: (미)UCLA 치과대학 방문교수
1997	: (독) 아헨치과대학 방문교수
1987~현재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부교수

인간이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면서 미(美)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치아에 대한 관심은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성의 증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ceramic 수복물이 각광을 받아 왔지만 1980년대부터 porcelain laminate veneer를 이용한 수복물이 전치부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그 사용이 보편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가지 제한점과 금기증이 있고 시술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등 모든 증례에 사용할 수 없는 보철물이기도 하다.

본 연제는 임상적인 지침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과 금기증을 제시하고 적응증의 경우에도 각종 주의사항 등을 나열하고자 한다.

임상적 지침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표된 성공 및 실패들을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고 국내에서의 5년 성공 및 실패률을 보고하고자 한다.

성공 및 실패의 평가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진정한 영구보철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려고 한다.

1. 심미적 및 치주적 평가
2. 실패의 유형
 - adhesive, cohesive, combined
3. 실패의 원인별 분류
 - accident, occlusion, adhesive failure, discoloration, esthetic, others
4. 성공 및 실패율